'스펙' 업데이트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대기자 명단·불합격 자녀 조언

합격과 불합격, 입학 대기자까지 다양한 상황에 접한 학생들은 과연 어떤 길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인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스텝을 내디뎌야 할지 몰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학생들이 많은 시기다. 특히 고등학교 4년 동안 전 과목 A학점에 SAT 점수가 2,300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비리그에서 한 군데도 합격하지 못한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다른 경쟁자들의 스펙이 얼마나 더 나은지에 대해 궁금해 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한다. 사실 최근 수년간 지원자들의 스펙은 갈수록 단단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 또는 자녀의 불합격을 납득하기 힘들다며 대학에 이의를 제기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합격자는 이제 정해진 일정대로 고교과정을 잘 마무리하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면 되지만, 대기자 또는 불합격자들은 여전히 할 일들이 남아 있다.

일부 대학은 여전히 지원서를 받거나, 신입생 등록 미달로 추가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다. 필요한 경우 이 대학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뉴욕타임스〉

자녀를 격려하자

부모는 자녀에게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성공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스스로 쉽게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입학 대기자 명단에 들어간 지원자라면 포기하지 말고 이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원서를 다시 찬찬히 살펴보며 최근의 새로운 내용들로 업데이트 해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원 당시 빠뜨렸던 부분 추가할 내용 서둘러 제출

대기자는 이렇게

지난 1일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합격자들의 합격의사를 전달받았다. 대학들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몇 명의 대기자를 구제할 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유명 대학들 중에는 입학 대기자 중에서 단 한 명도 뽑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대학들도 있다. 하지만 대기자 통보를 받고 합격 통보가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서는 안 된다.

늦었지만 대학에서도 성공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즉 대기자에서 합격자로 가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대학에 보여주는 것이다.

지원서는 11학년까지와 12학년 초까지의 내용이었기에 지원서를 제출한 후 몇 달 사이에 자신의 스펙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서 검토를 다시 해보면 잘못했던 부분이 눈에 뜨인다고 고백한다. 입학사정관들은 지원자의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전체적인 그림을 만들어본다. 때문에 그 그림 속에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해 내고, 이를 메울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살펴보라.

제니 김
〈존스홉킨스 입학사정관〉

내용 전달방법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는 것도 좋다. 자녀가 사는 지역의 관할 입학담당관의 연락처가 입학 대기자 통보를 보낼 때 이메일이나 편지 속에 있을 것이다. 아니면 직접 대학의 입학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된다.

편지의 앞머리에는 반드시 지원자가 그 대학의 입학 대기자 명단에 든 누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 그 대학이 가장 가고 싶은 대학 1순위라는 것을 표현하고, 입학 허가를 받는다면 반드시 수락할 것임을 알려야 한다.

편지의 두 번째 문단에는 새로 업데이트 할 내용들 중 가장 인상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이 입학할 경우 대학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자세히 기술하도록 한다.

마지막 문단에는 만약 그 대학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싶고 또 어떤 수업을 듣고 싶은지에 대한 열망에 대해 쓰도록 한다.

그리고 끝맺음은 '보내 드리는 서류를 본인의 지원서에 추가해 주기 바라며 좋은 소식을 듣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도록 한다.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각종 학력경시대회 수상, 출판물, 공연, 전시회, 새로운 봉사활동 및 업적, 운동 팀에서의 새로운 성과, 성적 향상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좋다.

거짓은 금물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것이 없어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위험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있지도 않은 클럽을 조직했다고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변화의 모습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같은 비행을 해서도 안 되지만, 만약 나중에 적발될 경우 감당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온라인·커뮤니티대 통한 편입… 1년간 사회경험도

▪불합격자를 위한 옵션들

불합격자 중에는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고 다른 대학에는 합격하거나, 아예 합격한 대학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이런 경우 학생은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 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다. 자신에게 맞는 옵션을 찾아 최선을 다하면 된다

1. 온라인으로 2012년 등록 인원수를 채우지 못한 대학들을 찾아보자.

전국 입학카운슬링연합회(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 Admission Counseling: nacacnet.org)에서 'NACAC Space Availability Survey'를 클릭해 각 대학들이 위치한 주를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여름까지에 걸쳐 지원 가능한 대학 정보가 업데이트 된다.

매년 바뀌는 정보이므로 반드시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해에 리스트를 받도록 하라.

2. 커뮤니티 칼리지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다. 만약 커뮤니티 칼리지에 들어가서 풀타임으로 2년을 열심히 공부하면 4년제 대학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다. UC계열이 대표적이다.

3. 1학년 입학 재도전

1년 동안 자녀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계획하여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해낸 다음 다시 내년 가을에 지원하는 것이다.

외국의 교환학생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소설을 쓴다거나 연구소에서 인턴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계로 선교여행을 하며 더 큰 세상을 경험해 보는 것도 있다.

4. 기타

정규 학사학위를 받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전공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게 있다. 유명 대학들을 비롯해 많은 대학들이 평생교육원이라고 부르는 'extension' 'continuing education' 'general studies college'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정규 학사과정이 아니라 나이 많은 직장인들과 함께 밤에 공부를 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운동시설이나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다. 대신 수업료가 굉장히 저렴하고 입학도 훨씬 용이하다.

일부 대학들은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최소한 1년 혹은 2년 이상이 되어야 입학이 가능하기도 하다.

Invisible Orthodontics

권 교정치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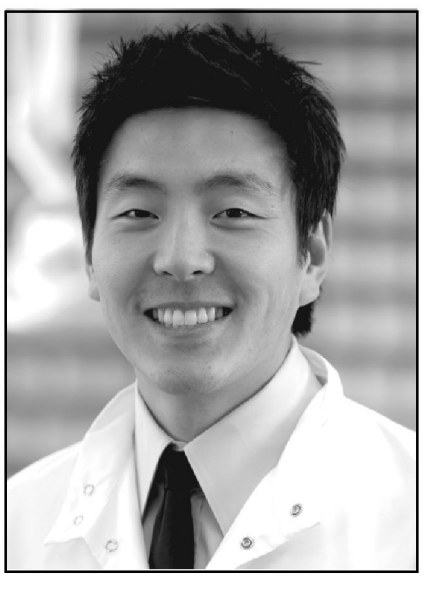
Board Certified Orthodontists

대표전화 1-888-755-1888

www.kwonorthodontics.com Facebook : Kwon Orthodontics

권중건
- Diplomate of the American Board of Orthodontics
- 서울사대부고 졸업
- 서울치대 졸업
- U.S.C.치대 졸업
- U.S.C.치대 교정과 대학원 졸업
- U.C.L.A., T.M.J. Mini Residency수료
- Member of American Association of Orthodontists

L.A. OFFICE
(213)739-8678
3700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진료시간:월,화,목 9AM~6PM
토 8AM~3PM

LA CANADA OFFICE
(818)248-0124
1528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진료시간: 수,금 9AM~6PM

Donald Kwon
- Diplomate of the American Board of Orthodontics
- Dual Degree in Economics and Computer Science from University of Pennsylvania
- DDS from the School of Dentistry of USC
- Certificate in Orthodontics from the School of Dentistry of USC
- MS in Craniofacial Biology from USC
- Member, American Association of Orthodontists